

남구, '제3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제' 23일 팡파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남구에 따르면 제3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거주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단체 관계자, 주민 등 2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다.

장애인 문화예술제는 1부와 2부

로 나눠 약 90분간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은 올 한해 관내 장애인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연다.

장애인 문화창작단으로 활동 중인 김민호씨는 이날 창작단원들의 작품을 모아 만든 시집을 김병내 구청장에게 전달하며, 김병내 구청장은 화답으로 장애인 이빛나니씨와 함께 시 작품 2편을 낭송할 예정이다.

2부 마당은 문화공연으로 채워진다.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단 소속 앙상블 팀과 합창단 팀이 각각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실로암사람들과 소화천사의집,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요한빌리지에서 수화 중창 및 방송댄스, 하모니카, 시 낭송 및 노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더원밴드도 장애인 문화

예술제 개최를 기념해 축하 공연에 나선다.

이밖에 남구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함께 바라. 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작품 전시회에서는 회화 및 공예 등 45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관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1년 연속 수상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1년 연속 수상의 대업을 이어갔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서류와 인터뷰 등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60개 우수사례 단체가 참가했으며 최종 수상 등급은 전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의 심사 결과 결정됐다.

이에 북구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특별공모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동 주민자치회가 본선에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용봉동은 '마을의제 실현의 정석! 용봉골 주민자치 프로세스' 사례로 지역 공동체 모델 개발·운영과 5개년 마을계획의 체계적 추진 공로를 높게 평가받

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삼각동은 '세대와 환경, 재생이 자치로 순환하는 행복한 바람개비 마을'로 우수상을, 매곡동은 '매화마을이 그려가는 하모니-주민총화·리빙랩·마을기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지역활성화 분야는 운암1동이 자생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한 '운암1동만의 우영우 이야기'로 우수상을, 주민이 그려 나가는 살기 좋은 동네 버드리 야구마을로 응모한 임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운암2동 '운암철도 9.9.9.' 철길을 뚫고, 사람을 잇다'가 특별공모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을미래계획을 세우고 주민 스스로 의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이 21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서구, 건강도시학교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가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구청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주민 48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와 주민리더의 역할 ▲기후위기시대, 건강한 탄소중립도시 ▲마을이웃과 나누고 싶은 환경이야기 ▲내몸과 건강을 지키는 걷기 강좌 및 실습 등 총 4차시의 강의내용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건강도시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에 참여해 건강생활을 독려하는 건강리더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행정과(062-350-4753)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활동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건강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를 위해 '우리동네 건강마을 만들기', '서구민과 함께하는 일상속 걷기실천사업' 등 다양한 건강실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혁신 정책과 미래 전략 개발을 이끌 '민선8기 정책기획단'이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최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민선8기 정책기획단 위촉식을 갖고 분야별 핵심전문가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첫 회의를 가졌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민선8기 정책기획단 출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혁신 정책과 미래 전략 개발을 이끌 '민선8기 정책기획단'이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최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민선8기 정책기획단 위촉식을 갖고 분야별 핵심전문가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기획단은 민선8기 광산구 핵심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현안 해결

을 위한 '현장형 싱크탱크'다.

민선8기 광산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 생태·역사·문화 광산의 매력을 담은 '명품30리길' 조성 등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노동 전문가를 비롯해 로컬디자인, 지역 관광, 환경, 도시재

생, 복지, 자치행정, 인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기는 2년으로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생활 △보건의복지 △자치행정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구청 주요 정책연구를 통한 이론 정립과 방향 설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 대응 방안 제시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기만 기자

동구, 행안부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자원순환가게' 탄소중립분야 우수사례 선정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혁신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동구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주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동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혼

합쓰레기에서 재활용 자원을 별도 분류해 유가 보상해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중심사 입구 등 4곳에 재활용회수기 6대를 설치·운영 중이고 매주 화·수(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자원순환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구라미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삶에 직접 와닿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3

영상자료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희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자세히보기

진실은 이렇습니다
No!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